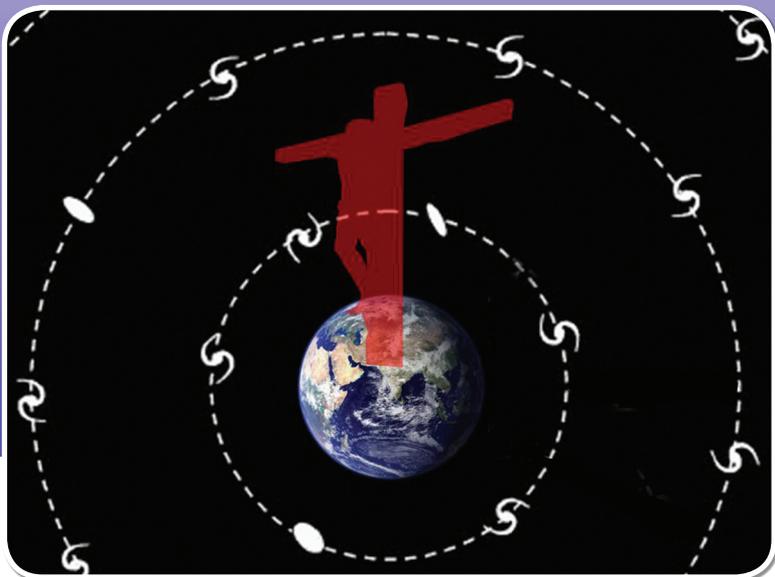


CREATION

TRUTH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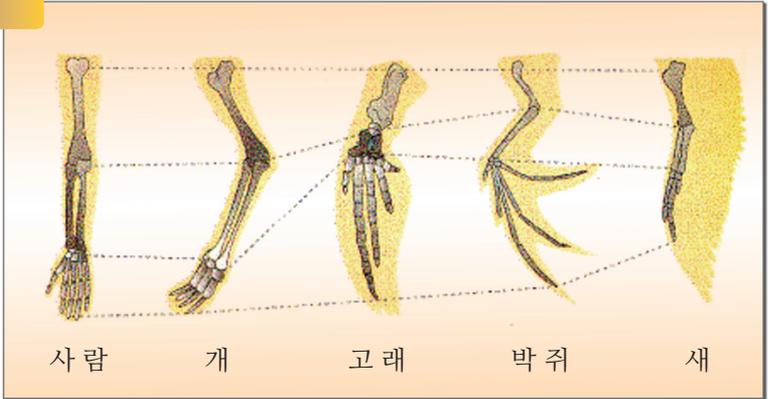
우주와 별들이 광대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지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시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사 45:18).

그 지구, 바로 이 땅에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를 초월한 창조주가 이 작은 공간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요 1:14). 그 이유는 이 땅이 자신의 형상이 창조된 곳이며(고전 15:47), 우리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 감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 이재만 부회장의 편지글 중에서



구조가 비슷하다고 진화의 증거인가?

그림과 같이 사람의 손, 개의 앞발, 고래의 가슴지느러미, 박쥐의 날개, 새의 앞날개 등을 함께 그려놓은 그림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이런 설명도 함께 읽어보았을 것이다. “모습은 다르지만 해부학적으로 기본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은 공통조상에서 갈라진 진화의 증거를 보여준다” 진화론자들은 이와 같이 모양과 기능은 다르나 해부학적 기본구조가 같은 기관을 상동기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을 진화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발명품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을 경우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자전거, 모터사이클, 리어카, 자동차, 유모차 등은 모두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모양이 비슷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땅 위에서 움직여야 하고, 같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비슷한 재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각 동물을 똑같이 대기에서 숨을 쉬게 하고, 물을 먹도록 하고, 같은 중력을 받게 하셨으므로 동일한 구조로 만드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군다나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도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만드신 것을 아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각종 짐승과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창세기 2:7, 19). 그러므로 같은 재료로 동일한 환경조건에 살도록 창조하셨으니 구조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사하다는 것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각 동물들의 신체구조는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고래의 가슴지느러미를 만드는 유전정보가 아무리 다양하게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개의 앞발이나 사람의 손으로 우연히 변한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연히 사람의 손이나, 박쥐 날개나, 새의 날개로도 전환되는 것도 불가능 하다. 또한 과학자들에 의해 이런 실험이 이루어진 적도 없으며, 생물학적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상동기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 각각이 자신들의 생활에 알맞게 완벽히 디자인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손은 손가락과 함께 사물을 쉽게 조절 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개는 특수한 관절을 갖고 있어 빨리 달리는데 문제가 없다. 고래의 가슴지느러미는 수영을 용이하게, 박쥐의 날개는 날면서 다양하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새의 날개는 공기의 저항을 이용하여 날 수 있도록 각자가 특수하게 디자인되었다.

이미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어떤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런 여러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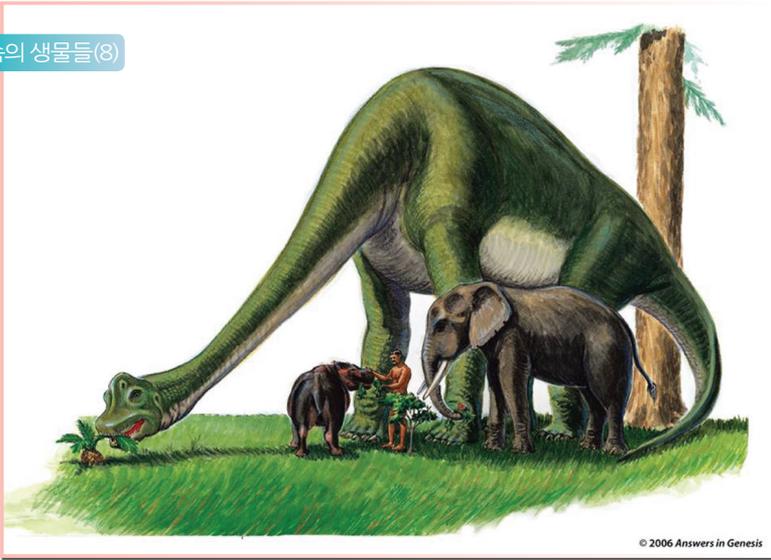
들로 진화되는 과정이 화석이나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보더라도 상동기관이라는 것은 단지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각 동물들의 기관을 설명하려다가 보니 등장한 억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어떤 것도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다(히브리서 11:3). 오히려 보이는 것을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상동기관을 보면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을 목적에 맞게 창조하신 놀라운 솜씨가 보이지 않는가?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베 헤 모 Behemoth

“그러면 공룡은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지질시대가 진화론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시대란 사실을 알게 되면 곧 떠오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공룡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룡이 어떻게 방주에 탔을지, 언제 어떻게 멸종 되었는지 궁금하였는데 공룡이 살았다는 중생대가 실제 역사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면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할 것이다. 세상 과학자들이 줄 수 없는 답을 얻게 되는 순간이다.

그런 허구의 지질시대를 믿고 있으면 중생대의 공룡이 멸종한 후 적어도 6500만 년 후에야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했다고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절대로 공룡을 보아서는 안 된다. 또, 공룡의 죽음은 사람의 죄와 상관도 없다. (그렇다면 대속자 그리스도도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 많은 공룡 그림과 조각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글자로 남겨진 기록들도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이나 조각들과 꼭 닮은 공룡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그랜드캐년의 지류인 하바수파이 캐년 암벽에는 언제 그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에드몬토사우루스(Edmontosaurus)와 흡사한 그림이 사람들과 함께 그려져 있다. 유타 아나사지 인디언들은 BC 150-AD 1200년 경에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닮은 초식 공룡을 암벽에 그려 놓았다. 그림뿐 아니라 조각도 있는데, AD 1200년에 건축 된 캄보디아의 라 프롬이라는 사원에는 스테고사우루스 모양이 돌 벽에 조각 되어 있다. 이런 그림과 조각품들이 보거나 듣지도 않은 사람들의 순수한 상상으로 만들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화석에서 그와 꼭 같은 모습의 공룡이 발견 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증거들을 보고 판단한다면 공룡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공룡과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음을 알려주는 기록들도 있다. BC 2000년 경에 기록된 수메르 점토판에는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용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고, 영토확장을 하던 알렉산더 대제가 BC 330년 경에 인도에 갔을 때 커다란 파충류를 섬기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또, AD 1572년 이태리 볼로냐 근처에서 뱀티스타라는 농부가 용을 죽였다는 사실이 과학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들과 더불어 수 없이 많은 용에 대한 전설들은 사람들이 공룡과 함께 살았다는 강력한 증거들이다.

성경에도 공룡이 등장하고 있다. 욥기 40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베헤못이란 동물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설명에 의하면, 베헤못이란 동물이 꼬리를 치면 마치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으뜸되는 동물이었다. 뿔관과 쇠막대기 같은 뼈들을 가진 이 베헤못은 요단강이 창일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묘사는 마치 베헤못이 브라키오소르스(길이 22미터, 높이 17미터)같은 큰 공룡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동물을 보라고 말씀 하신다. 욥 앞에 그 동물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욥기 41장 전체는 리워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인데 마치 용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욥의 나이나 욥기에 묘사된 환경들을 보면 욥은 노아홍수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이 형성 되기 전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주에서 나온 지 2~300여 년 지난 BC 2000년 경에는 대형 공룡들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성경 기록을 뒷받침하는 최근 발견들도 있는데, 사하라 사막 한 가운데서도 대형 동물들과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보고가 있으며 (National Geographic 2008년 9월호), 북극해 근처에서 석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유물들이 발견되어 Science 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2004년 1월 2일). 시베리아에 매머드 수백만 구가 묻혀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녹지가 무성했던 사하라 지역이나 석기를 사용해야 했던 사람들이 북극해에 근처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베리아의 매머드 등은 그 시대가 노아홍수 직후와 빙하시대 말기까지의 환경임을 알 수 있다. 빙하시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빙하시대 이야기」(이재만-최우성 저, 2011년 4월, 두란노)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람들이 공룡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만 고생대-중생대-신생대라는 진화론적인 가르침으로 세뇌 된 마음이 증거들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 아닌 거짓 지식을 사실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진화론에 바탕을 둔 고생대-중생대-신생대라는 허구의 지질시대와 46억 년의 지구역사 같은 지식을 사실로 받아 드린다면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모실 필요가 없다. 진화론적인 지질시대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타락-노아홍수-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으로 이어진, 불과 수 천 년의 짧은 역사 속에 들어 있는, 복음 때문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 탐사여행

10월 13-15일 GMI(Grace Mission International, 총재 김광신 목사)의 선교사 훈련생을 중심으로 창조과학탐사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선교사 지원생도 있었고 이미 선교사로 헌신한 가족들도 있었는데 창세기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생각하게 하는 여행이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창조과학탐사여행은 버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라 40명 이상의 참가자가 필요한데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해 은혜한인교회 장로님/권사님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함께 참석해 주시는 사랑의 실천도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이분들 앞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의 나눔을 통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2월 Coffee Break 창조과학 탐사여행

12월 마지막 주(26일-28일)에 여성 모임인 Coffee Break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탐사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컨퍼런스에 이어 어머니들이 탐사여행을 참석한 후 기획된 여행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3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012년 1월 2-4일 13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출발합니다. 매년 겨울과 여름 방학에 출발하는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입니다. 참가자격은 유학생 부부에 한정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와 열바인 온누리교회(담당목사 박종길)의 후원으로 참가비는 \$100입니다.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참가비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탐사여행

10월 22일 베데스다대학교와 Grace Mission University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필드트립이 샌디에고에 있는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과 토리파인스 비치의 지층과 화석 탐사로 진행 되



었습니다. 직장과 학교 행사가 겹쳐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짧은 시간, 한 자리에서 리뷰하고 실제로 보고 만져봄으로써 복음과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더욱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세미나

지난 달에서 여러 곳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호산나교회 (10/16, CA, 담임목사 라세염),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10/19, CA, 담임목사 남성수), 체리힐 제일교회(10/21-23, NJ, 담임목사 고한승), 뉴저지 초대교회(10/28-30, NJ, 담임목사 한규삼), 주님의빛교회 (10/29, CA, 담임목사 주혁로), 복된교회 (10/29, CA, 담임목사 장재원), 사랑한인교회(11/2-4, CA, 담임목사 하재식). 세미나로 초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회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중국인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양지에 있는 온누리교회 비전 빌리지에서 열린 중



신학교 필드트립 중 Torrey Pines St. 비치에서

국민들 대상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하루 동안 인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린 수련회 중에 마지막 날에 창조과학 세미나가 열렸는데, 지친 기색 없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 10월 중국인들을 위한 탐사여행이 열려 처음으로 중국인들을 위한 창조과학의 문이 열렸는데, 이번에 대규모로 중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진화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이 참가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나오고, 세미나를 마친 후에 창조과학 도서와 자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콘서트', '노아홍수콘서트' '빙하시대이야기'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준비도 할 것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복음전파에 창조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가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ITCM을 통해 중국을 품는 창조과학 사역자도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온누리교회 선교2000



팀에서 PPT를 완전히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셔서, 앞으로 중국인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2012년 겨울 ITCM

2012년 겨울 ITCM(창조사역 집중훈련,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이 오는 12월 2월 두 달간 진행됩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참석했던 다섯 명의 대학생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을 넘어,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까지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앞으로 창조과학 전임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성과가 2기에서도 이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7명의 학생들이 참가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성경이 정확무오한 사실임이 전달될 것을 기대합니다. 단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이미 사역이 시작된 국가에서도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가 등장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도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으로 바꾸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앞으로 창조과학 전임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성과가 2기에서도 이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7명의 학생들이 참가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성경이 정확무오한 사실임이 전달될 것을 기대합니다. 단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이미 사역이 시작된 국가에서도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가 등장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도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Fuller Seminary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

오는 1월 30일-2월 2일(월-목) Fuller Seminary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가 열립니다. 지난 Fuller 신학생과 유학생을 탐사여행의 성과로 이 집중 세미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은 앞으로 각 교회의 리더가 될 분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창조과학을 이해하고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집중 세미나에 대하여 교단과 상관없이 그동안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석했었던 각 선배 목사님들께서 강력 추천하는 글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집중 세미나의 전초 격으로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간담회가 열립니다.

창조과학 영상

최근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훌륭한 영상을 만나실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CGNTV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창조과학의 이해와 효과를 이해하는데 귀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 PD들의 소감과 함께 최근 업그레이드 내용을 소개합니다.

● 창조과학 이웃리치

2011년 6월 11~ 18일 8일간 그랜드캐년을 포함한 3대 캐년 탐사여행의 여정을 비전트립 형식으로 담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같이 보고, 참석하신 이들을 통해 현장에서 전해지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감동과 함께 들어볼 수 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하나님의 창조손길과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느낄 수 있다. 특별히 참석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과 “처음이 좋았다”는 탐사여행의 주제를 확실하게 전달한다.



내레이션: 텔런트 윤유선

출연: 텔런트 박시은, 신지수, 엄지원, 윤유선, 한지혜

담당PD 촬영: 강아름

“태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속 현장들을 밟으며 촬영하는 내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아름다운 세상들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창세기 대홍수

“창세기 대홍수로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다!” 지구의 역사와 대홍수의 증거를 찾기 위해 지질학의 성지 그랜드캐년을 탐사하는 영화배우 엄지원이 주인공이다. 지층과 화석을 통해 드러나는 엄청난 진실! 진화론의 패러다임에서 단지 신화로 여겨졌던 노아홍수의 기록은 단 한 줄도 빠짐없이 정확한 과학적 사실로 밝혀지는데 창조와 심판의 흔적 그랜드캐년을 통해 진리로 자유를 누리고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바랍!



내레이션: 영화배우 엄지원

담당 PD: 황주연, 촬영감독: 김영민

“그랜드캐년은 거대한 장송곡(requiem)의 증거였습니다. 홍수 심판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기쁨의 찬양보다는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99.9%가 아닌 100% 사실의 기록임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창세기 속으로

일본 CGN 개국 5주년 기념으로 일본 창조과학 단체인 “Love Creation”과 함께 실시된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일본인들이 본토에서 직접 미국에 방문했다. 특별히 탐사여행 이전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던 “유다(일본어음)”씨가 신앙인인 아내와 함께 참석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진행된다. 탐사여행에는 Love Creation 회장인 사사가 변호사와 일본 동경에 위치한 요도바시교회의 미네노 목사님도 참석하셔서 창조과학 사역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 총 2편으로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담당 PD: 김유현, 김태훈

첫 번째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이재만 선교사님의 열정과 사랑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창조과학선교회의 홈 페이지(www.HisArk.com)에 링크 되어 있습니다. 각 사이트의 주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창조과학 이웃리치 http://www.cgntv.net/z_proinfo/intro_3031/sub02.aspx?vid=75830&runhh=18&where=all
2. 창세기 대홍수 http://www.cgntv.net/z_proinfo/intro_3031/sub02.aspx?vid=77839&runhh=18&where=index&total=84&clickvodnum=82
3. 창세기창세기 속으로 http://www.cgntv.net/z_proinfo/intro_3031/sub02.aspx?vid=78355&runhh=18&where=all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 (Spitzer Space Telescope M81 은하 이미지)

하늘을 장막같이 펴시며

우주! 우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같이 모두가 거할 수 있는 집(House)이다. 아마도 성경 만큼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책은 없을 것이다. 성경의 첫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의 창조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과정에 대한 상세한 표현은 없을지라도 하루 하루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고 한번 혹은 두번씩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두 일곱차례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번째 날만은 그 말씀이 없다. 왜일까?

지난 봄 창조과학연구원(ICR) 물리학 교수인 험프리 박사는 새로운 우주모형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추측 하였다.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중력에 관한 방정식(텐서 방정식으로 16개 중 10개 식이 독립적임)의 근사해(Metric)를 구하고 그 메트릭으로 지구의 시간이 우주의 시간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¹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난 호 뉴스레터(2011년 2월 - 7월)를 참고할 수 있다.

험프리 박사는 자신의 해(solution)를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께서 중력포텐셜(중력장에 있는 임의의 한 지점에서 단위 질량이 가지는 에너지로 정의됨)의 수위를 낮추거나 높게 조정함으로써 시간이 정지하는 무시(Timeless)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데(그림), 이 무시 영역에서는 모든 물질계의 기능이 중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험프리 교수는 방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공(Spacetime)을 펼치시고 시간을 느리게 팽창시킬 수 있고 또 정지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약성경에는“하나님이 하늘을 장막같이 펴시며 또는 차일같이 펴시며...(이사야 40:22); 여호와께서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시며...(렘10:12)를 비롯하여 17회 이상 팽창하는 우주를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찌면 볼

가능하겠지만, 험프리 교수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이사야 34:4)”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는 시공을 펼치는 것에 비유하였다. 또 펼치시는 차일에 장력을 주어서 그 공간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시간도 팽창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1929년 허블 이후 오늘 날 모든 과학자들이 우주의 팽창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주에는 중력(만유인력)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으며 그 힘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힘이 바로 척력(밀어 내는 힘)이며 아마도 흑암에너지(볼 수 없는 가상의 에너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다면 그 같은 척력이나 흑암에너지는 왜 존재하며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사 40:28)”, 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요 5:17)”라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주를 차일같이 붙드시고 펼치시며 일하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둘째 날의 사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닐까?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34:16)

[1] Humphreys, D.R. 2008, New time dilation helps creation cosmology, Journal of Creation, 2(3): 84-92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AFTER EDEN

by Dan Lietha



산타보다
심각한
Darwin주의

“하나님을
환수염의
할아버지로
대체해
버린 건
정말
슬픈 일
아니야?”

성경이 천문학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는가?(2)

우주의 팽창과 나이

성경에는 우주가 팽창되었다 또는 펼쳐졌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 있다. 일례로 이사야(40:22)는 '사람이 거할 장막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펼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창조 후 우주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하나님이 하늘을 펼치시는 것이 바로 우주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구절을 맨 처음 기록할 때는 우주의 팽창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매우의 아했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밤 하늘을 보게 된다면 어제 밤과 동일하게 보일 것이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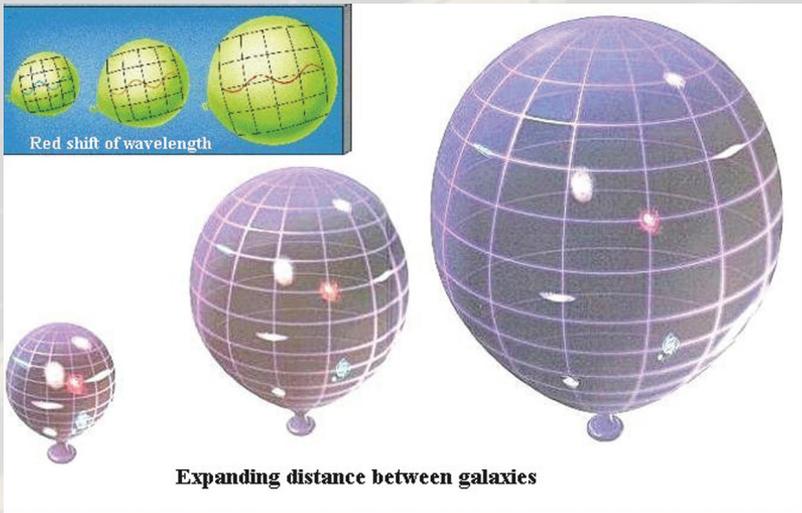
세상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불변하는 것으로 믿었다. 과거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아이디어는 낯선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성경이 언급하는 우주 팽창에 대한 가르침을 크리스천들이 거부하도록 하는 영향력이 되어 왔다.

만일 어느 크리스천들이 이사야서(40:22)의 말씀이 부자연스럽고 납득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 팽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세상이 믿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다를 경우, 세상은 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잘못이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믿는다. 1920년 천문학자들은 은하군단들이 서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 이것이 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간단한 실험으로 풍선 표면에 점들을 표시해두고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면 표면에 있는 점들은 서로서로 멀어진다. 만일 전 우주를 펼치셨다면 은하들은 풍선 위의 점들과 같이 서로 떨어져 갈 것이다.

세상 과학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수천 년 전에 우주의 팽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우주의 나이

물론 성경은 우주의 나이에 대하여 전 우주가 6일 동안 창조되었다(출애굽기 20:11)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 창조가 약 6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계보와 사건들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매우 다르다. 대부분 세상 과학자들은 빅뱅이론이 유효하며 우주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믿는다. 빅뱅은 하나님 없이 우주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며 성경의 우주 창조 기원에 대한 대안이다 (다음 장 “빅뱅은 성경적인가?”를 보라).

빅뱅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과학적 사실들을 평가한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빅뱅이 사실이라 믿고 자신들의 믿음과 일치하도록 증거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우주의 참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빅뱅 이론 보다는 훨씬 더 이치에 맞는 증거를 보게 된다.

성경을 사실로 믿으면 6000여 년에 일치하는 증거를 보게 되지만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주의 나이에 대한 사실들을 살펴보자.

물론 빅뱅 지지자들은 항상 또 다른 가정과 이론을 내세워 다시 평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음의 사실들로 우주의 나이에 대하여 성경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의도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옳다. 그렇지만 과학적 사실들을 이해할 때 이 사실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과 일치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증거들은 늘 젊은 우주를 지지한다. (계속)

Dr. Jason Lisle/ Answers in Genesis의 강사

출처: War of the worldviews

기쁨의 교회 탐사여행

8/01 - 8/03/2011

성경의 근거를 통해 바라보니 마음이 벅차올랐고 ...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정희자

그 동안 진화론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배울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홍현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처음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차란희

성경에 근거를 두고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송규연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야 겠다고 ... -박일예

창세기 1장에 정말 복음의 기초가 있고,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벽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상현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의문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황정현

이제는 제가 그 친구에게 노아홍수 이후 생겨진 그랜드캐년 생성의 이유를 말해줄수 있어 기쁩니다. -안재성

탐사여행 오기전에는 말씀을 무조건 믿었지만 이번 여행 이후론 확실한 근거를 알고 믿게 되었다. -이인호

창세기의 창조기록에 대해 늘 확신할수 없었다. ... 이 부분들은 대부분 설화나 신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 의문이 풀리게 되어 앞으로 복음을 모르는 분에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것을 믿는다. -오기현

막상 여기 현장에 와서 그 현장을 보니 ...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지 ... 좀더 분명하게 마음속에 다가온다. -신문주/분당 샘물교회

창조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형금

십수년 간의 교육의 모든 근간이 흔들린다. -안미순/서울 목동지구촌교회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창조과학 선교회여행. - 황무원/ 목동 지구촌 교회

진화론에 대해 분명히 창조론의 당위성을 제시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 하나님 창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은혜롭고 신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중 목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나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 Sarah Park

이 세계를 지으심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들음으로써 다시한번 큰 감명을 받고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최준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꼭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게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 서은경

Through this tour, I was able to come face-to-face with the facts and evidence of not just parts of the Bible but of God Himself. - Christina Oh

이곳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되어 감사합니다. -Soon Oh

성경은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것인줄 알았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믿을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하준/ 한국 분당 샘물교회

It's been a tremendous experience! There's so much to know and learn that it's just amazing. God really knew what he was doing. Thank you for the ministry work. - Rev. Mathew Kim

Although faith believes in the unseen and the hopeful, this trip gave me the reality of what I believe in. -Jonathan Lee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보게 되었습니다. -박진

과학과는 거리가 멀어서 관심이 없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다시 뵈게 되었습니다. -이하경/ 분당샘물교회/빙햄턴 한인침례교회

창조과학 탐사여행. 짧고도 긴 여행이었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잘 풀이해주신 최우성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 -이성만/ 한국 분당 샘물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성(나의 죄성)이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문정란

● 편집되지 않은 더 많은 간증은 웹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ACT Schedule

- 12/2-4 하와이 벨렐 침례교회 (이재만), Hawaii
- 12/7 로댐교회 (이재만), Anaheim, CA
- 12/9-11 오레곤 에덴장로교회 (이재만), OR
- 12/12-23 World Mission University (이재만, 최우성)
- 12/18 LA 온누리교회 (이재만), LA, CA
- 12/26-29 BRIDGE 2011 (EM, 김선옥), MD
- 12/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모집, 커피브레이크(이재만)

2012년

- 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13차 유학생, 213-381-1390)
- 1/10-12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청소년)(213-381-1390) (이재만)
- 1/16-20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213-381-1390) (이재만)
- 1/23-26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부산 청소년팀)(213-381-1390) (이재만)
- 1/30-2/2 Fuller Seminary 신학생 집중 세미나
- 2/12-15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 순복음교회 남미선교사)
- 2/20-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 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유타주 베다니침례교회), (이재만)
- 4/9-4/26 한국방문(이재만)
- 4/10-13 대만방문(이재만)
- 4/16-18 부산 영도 연합집회(이재만, 한국)
- 4/26-5/7 일본방문(이재만)
- 5/10-17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 5/19-26 창조과학 탐사여행 (CGN-TV)
- 5/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 6/4-7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 6/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4차 Fuller 신학생, 213-381-1390)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